

한중경제포럼

제22-호 2022년 8월 5일

2022년 제1회 KIEP 방문학자 포럼

〈포럼 개요〉

1. 행 사 명: 2022년 KIEP 방문학자 포럼
2. 주최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경사무소
3. 장 소: 베이징 힐튼호텔 3층(名仕5轩)
4. 일 시: 2022. 7. 29(금) 14:30~17:30
5. 프로그램

시간	주요 일정
	▲ 인사말: 이상훈 KIEP 북경사무소 소장
14:30~15:15	【1세션】 RCEP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일체화 발표: 중국상무부연구원 장젠핑(张建平) 연구원 토론: 대외경제무역대학 중국WTO연구원 투신취안(屠新泉) 원장
15:15~15:50	【2세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특징, 영향 및 미래 전망 발표: 중국국제경제교류중심 장모난(张茉楠) 연구원 토론: 중국상무부연구원 뤼보(吕博) 연구원
16:00~16:35	【3세션】 탄소 피크·중립 목표 하의 비철금속공업의 고도화 발전 발표: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귀차오셴(郭朝先) 연구원 토론: 중국거시경제연구원 류셴웨이(刘现伟) 연구원
16:35~17:00	【특별세션-온라인 발표】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전략 조정에 대한 연구 발표: 지린대학교 동북아연구원 런밍(任明) 교수
17:00~17:30	▲ 종합토론

【1세션】

RCEP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일체화

◆ 발표: 중국상무부연구원 장젠핑(张建平) 연구원

〈주요 내용〉

-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는 50개가 넘는 양자·다자 간 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며, 그중에는 거대 무역협정인 RCEP이 포함되어 있음. RCEP은 2019년 기준 GDP·무역 규모·인구 등이 전 세계 약 30%를 차지하였고,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유럽의 경제총량이 줄어들면서 현재 기준으로는 RCEP이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초과함. RCEP을 통해 회원국들은 GDP 성장, 고용 창출, 무역 성장, 산업 발전 측면에서 모두 혜택을 볼 것임. 현재 세계화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글로벌 경제성장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RCEP은 글로벌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며, RCEP의 원산지 누적 기준을 활용함으로써 글로벌 가치사슬(GVC)과 공급망의 연결이 더욱 긴밀해질 것임. 앞으로 RCEP의 무역, 투자,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점점 더 분명해질 것이며 동북아 지역과 아태 지역 더 나아가 전 세계에 대한 영향력도 꾸준히 확대될 것임. RCEP은 현재의 국제 정세 하에서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의 승리로 볼 수 있으며, 경제의 세계화 및 지역 일체화는 사람의 의지로 바꿀 수 없는 추세임.
- RCEP이 역내 수출 증대를 크게 견인할 전망이다. 계산해보면 RCEP의 출범에 따른 수출 증가 측면에서 한중일 3국이 상위권에 있으며, 그중에서도 일본의 수출이 2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나 타남. RCEP 출범 이전 일본은 중국, 한국, 싱가포르, 뉴질랜드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이었음.
- 인도는 RCEP 논의에 참여했지만, 최종 탈퇴를 선언하고 가입하지 않았음. 인도는 RCEP에서 탈퇴함으로써 GDP, 무역 등 여러 측면에서 손해를 입을 것임. 인도 국내의 낮은 인프라 수준과 제조업 경쟁력으로 인해 예측건대 앞으로 10~20년 이내에도 RCEP에 합류하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RCEP의 출범은 유럽 경제의 무역·투자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유럽은 중-EU 투자협정(CAI)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 중국과 EU 간의 복잡한 관계로 인해 투자협정의 추진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임.
- 미국이 민주당 집권 이후에 CPTPP에 다시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현재 상황으로 보면 미국은 CPTPP나 RCEP, APEC 등 다자무역협정에 모두 관심이 없어 보임. 현재 미국의 산업 공동화(hollowing out) 현상이 매우 심각한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다자무역협정에 가입하게 되면 국내 제조업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되고 국내 고용이 더욱 감소하게 될 것이며, 이는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임.

□ RCEP을 통해 기존에 공백으로 남아있던 한·중·일 FTA가 체결된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었음.

◆ 토론: 대외경제무역대학 중국WTO연구원 투신취안(屠新泉) 원장

〈요지〉

- RCEP의 실현은 중국이 WTO 가입 이후 경제·외교 분야에서 취득한 가장 큰 성과 중 하나이며, 중국이 동아시아 공급망 내 지위를 강화하고 주위 환경을 안정시키는 데 있어서 중대한 전략적 의의가 있음.
- 경제적 측면으로 볼 때, RCEP의 가장 큰 우위는 바로 회원국의 규모와 다양성에 있음. RCEP 15개 회원국의 인구, GDP, 교역액 모두 세계 총량의 1/3을 차지함. RCEP의 경제개방 수준이 그리 높지 않지만, 더 높은 경제개방 수준의 소규모 협정보다 경제효율 향상의 폭이 훨씬 클 것임. 그리고 RCEP 회원국 간에 경제 규모, 경제발전 수준, 산업구조, 산업발전 수준, 자원 우위 등 면에서 격차가 크기 때문에 경제적 상호 보완성이 강하고 제품과 자원의 유동성도 클 것임. 회원국 간의 격차가 클수록 윈윈 협력의 공간과 가능성이 더욱 크며, 창출되는 경제효과가 더욱 클 것임. RCEP의 규모와 다양성으로 인해 자체적인 내부 순환이 가능한 거대한 경제체계를 형성할 수 있음.
- 구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RCEP의 가장 주요한 성과는 상품무역 시장의 일체화 수준을 더욱 높였다는 점임. 첫째, 비교적 높은 수준의 무관세; 둘째, 비교적 낮은 수준의 원산지 누적 기준; 셋째, 더 높은 수준의 편리성임. RCEP 회원국들은 대부분 농업 생산을 위주로 하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상품무역의 자유화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며, RCEP이 회원국들의 산업화와 산업고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RCEP은 서비스 무역 면에서도 비교적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했으며, 이는 회원국 간에 상품 무역과 투자를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RCEP은 투자 분야에서 지역 특색의 투자 규칙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역내 산업망·공급망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음. 그리고 RCEP은 지식재산권 규칙도 비교적 완비하였고 지식재산권 보호 표준과 관련한 주요 국제수준에 도달하였음.
- 잠재적 영향으로 볼 때, RCEP의 주요 영향은 여전히 상품무역을 창출하는 효과인데, 더 큰 시장과 더 높은 수준의 일체화 그리고 더 나은 조건들이 RCEP 역내 무역을 크게 확대할 것임. 그러나 더 큰 의미에서 볼 때 RCEP은 역내 산업망·공급망의 심도있는 융합을 크게 촉진할 수 있음. 수준 높은 대형 지역무역협정으로서 RCEP은 규칙이 비교적 완비되어 있고 무역, 투자, 비즈니스 환경 등 여러 방면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시스템적인 경제일체화 효과를 창출하였음. RCEP 회원국들은 기존에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RCEP을 통해 산업망·공급망 상호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임. 역내 기업들은 기업 자체의 수요와 경제법칙에 따라 역내에서 자유롭게 공급망을 배치함으로써 경제적 효과를 확대할 수 있고 각 회원국 간의 협력과 의존도도 향상될 수

있음.

- 그동안 한·중 양국은 무역과 투자 면에서 매우 긴밀한 협력을 이어왔으며, 앞으로 RCEP을 통해 양국의 협력이 더욱 심화될 것임. RCEP의 또 다른 역할은 양국이 제3국시장에서의 협력과 지역 공급망의 상호 보완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임. 한·중 양국은 모두 본국의 가치사슬과 산업망을 연장·고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RCEP이라는 넓은 시장에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양국의 공동 발전에 유리함.

【2세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특징, 영향 및 미래 전망

◆ 발표: 중국 국제경제교류중심 장모난(张茉楠) 연구원

〈주요 내용〉

- 현재 백 년 만의 대격변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고 경제의 글로벌화도 심각한 조정 단계에 처해있음. 미국이 제기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는 미국이 전 세계 분업체계를 재편하고자 시도하는 노력이라 볼 수 있으며, 현재의 경제 글로벌화에 광범위하고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바이든 행정부는 대외적으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서로 연결된 경제, 회복력 있는 경제, 녹색경제, 공정경제’라는 4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표명하고 있음. IPEF는 국제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 조세·반부패 등 4가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CPTPP와 비교했을 때 디지털, 공급망, 인프라, 녹색발전 등 내용을 더 강조하고 있음. 종합적으로 볼 때 IPEF는 CPTPP, DEPA, 경제번영네트워크(EPN) 등 3대 프레임워크를 조합·업그레이드한 메커니즘이 될 것임.
- IPEF의 특징, 속성 및 배후의 전략적 의도를 볼 때, IPEF를 지정학의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완전히 들어맞고 내용이 서로 보완됨. 미국은 IPEF를 통해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부족한 경제적 지지대를 보완함으로써 ‘군사적 힘(军事大棒)’과 ‘경제적 힘(经济大棒)’을 모두 확보하려 하고 있음. 미국이 IPEF를 제기한 목적은 지역 내 국가들에 ‘중국 외의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약화하기 위한 것이며, 나아가 미국이 아태 지역 내지 전 세계 분업체계 중에서의 리더 지위를 재건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전략임.
- IPEF는 아시아 내지 전 세계 분업체계에 예측할 수 없는 충격을 갖다줄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에 대해서는 무역·투자 대체효과, 산업망 이전 효과 등의 영향을 미칠 것임. 그러나 내생성으로 볼 때, 1970~80년대 이후 아시아 역내 경제권·산업망 일체화 체계가 이미 구축되었음. 그리고 내부적으로 볼 때 중국은 이미 아태 지역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 경제국의 가치사슬에 융합된

중추 국가가 되었고 최종 소비재나 중간재 무역을 통해 전 세계 1/3~2/3의 국가·지역들과 연결된 양방향 내포식(嵌套型) GVC 분업체계를 형성했음. 이와 동시에 중국은 ‘세계공장’과 ‘세계시장’의 두 가지 역할을 모두 감당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외부수요 시장 중 하나가 되었음. 이러한 논리적 관계는 이미 글로벌 산업 분업체계에 깊이 뿌리내렸으며 매우 견고한 것임.

- IPEF의 미래 전망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경제 번영을 창조할 수 있는지가 그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 될 것이며, 또한 IPEF가 참여국들에게 확실하고 공정한 이익을 나눠줄 수 있는지에 달려있음. IPEF는 특성상 비용과 편익이 서로 매칭되지 않음. IPEF는 미국이 전략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역내에서 공공재를 제공할 능력과 의도가 제한되어 있음. 바이든 행정부는 공식성명에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대국으로서 지역 내에서 경제 리더의 지위를 확대할 것”, “IPEF를 통해 미국 국내 노동자, 소기업, 농장주들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도록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선명한 대조를 보인 것은 공식성명에서 IPEF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얻을 수 있는 이득, 즉 관세감면이나 시장진입, 빈곤 문제 해결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임. IPEF는 ‘미국 우선주의’ 원칙을 준행하고 있으며, 실제로 아태 지역의 복지 향상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음. 이러한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로 인해 IPEF의 미래 전망은 매우 불확실해 보임.

◆ 토론: 중국 상무부연구원 뤼보(吕博) 연구원

<요지>

- IPEF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실시하기 위해 제기된 것이며, 오바마 행정부의 TPP를 수정한 것임. 기존의 TPP 회원국 중에서 남미 국가들이 제외되고 인도가 참여함. 미국은 IPEF와 TPP에 모두 중국을 가입시키지 않았으며, 이 두 개 조직의 목적을 보면 중국을 겨냥한 경쟁적 의도가 매우 분명하게 나타남.
- 중국은 RCEP 주요 회원국 중 하나임. RCEP에는 미국이 포함되지 않았고, 협정이 체결되기 전 마지막 순간에 인도가 탈퇴했음. RCEP의 대부분 회원국은 RCEP 이외에 미국이 주도하는 협력 메커니즘에도 동시에 속해있음. 이에 따라 IPEF와 RCEP이라는 두 협력 메커니즘의 관계가 더욱 복잡하게 되었음.
- IPEF와 RCEP 두 개 메커니즘은 강조하는 중점 분야가 서로 다르지만 양자는 모두 무역·투자 환경의 개선과 편리화의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음. 만약 두 협력 메커니즘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면 회원국들이 모두 혜택을 볼 것이며 경제발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 이런 점에서 볼 때 미·중 경쟁이 꼭 두 개 메커니즘의 상호 배척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
- 대부분의 RCEP 회원국들이 IPEF에도 가입하였고 그들은 두 개 메커니즘을 통해 모두 혜택을 받

기를 원하고 있음. 그들은 양다리를 걸치고 좌우에서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하지 결코 편 가르기를 원하지 않음. 어느 나라든 미중 분쟁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을 하거나 그 사이에 함부로 끼어들려고 하지 않음.

- 일본, 한국, 호주, 인도는 경제 규모가 비교적 큰 나라들이며 이들은 모두 미·중 양국과 긴밀한 경제무역 관계를 맺고 있어서 상호 이해관계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 이 네 개 국가는 국제전략적 측면에서 각자 자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음. 일본, 한국, 호주는 친미 국가이지만 중국을 자극하는 것을 꺼림. 인도의 경우, 현재 미국이 인도를 적극적으로 끌어당기려 하지만 인도는 미중 경쟁을 이용하여 자국이 이득을 얻고자 함. 현재 상황을 볼 때 인도는 대부분의 경우에 진퇴양난에 빠지고 있음. 아세안 국가들은 지역 내 협력을 매우 중시하지만 그중 일부 국가들은 지역 내에서 미국의 존재감을 빌어 중국과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있음.
- 중국은 글로벌 및 지역 평화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패권을 단호히 반대하고 국가 주권을 강력히 수호하며 타국 내정에 절대 간섭하지 않는 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하고 있음. 중국의 이러한 노력은 점점 더 많은 국가로부터 지지와 인정을 받고 있음.
- 한·중 양국의 경제무역 협력은 기반이 튼튼하고 앞으로 광범위한 발전 전망이 있음.

[3세션]

탄소 피크·중립 목표 하의 비철금속공업의 고도화 발전

◆ 발표: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귀차오셴(郭朝先) 연구원

〈주요 내용〉

- 배경
 - 2020년 9월 시진핑 주석은 제75차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중국의 탄소 피크·탄소 중립(이하 ‘쌍탄(双碳)’)의 목표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쌍탄 목표는 새로운 시기 중국경제가 녹색발전 방식으로 전환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과 결정임. 쌍탄 목표는 앞으로 중국의 경제체계에 근본적인 변혁을 일으킬 것이며, 중국 비철금속공업의 발전 고도화와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요소를 더해 주고 새로운 요구를 제기하였음.
- 최근 몇 년간 중국 비철금속공업의 발전 현황
 -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비철금속공업은 연평균 5% 이상의 생산량 증대를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2020년에는 비철금속공업 생산량이 처음으로 6천만

돈을 넘어섬.

- 2021년 납과 티타늄 등의 생산량이 빠른 성장세를 유지했으며 이에 비해 아연, 니켈, 마그네슘, 수은 등의 생산량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비철금속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관련 기업들의 재무재표가 현저히 호전되었음. 코로나19 사태 발발 후 비철금속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가 2020년 2분기부터 대부분의 비철금속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하였고 2022년 1분기까지 지속해서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음. 그러다가 2022년 4월부터 다시 대폭 하락하기 시작함.

□ 중국 비철금속공업의 발전에 존재하는 문제

- 광물자원의 안보가 취약함. 중국은 비록 비철금속의 매장량이 풍부한 편이지만 종류별 매장량 격차가 크고 1인당 점유율이 낮은 수준임. 중국에서 산업화가 빠르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비철금속에 대한 강도 높은 개발과 소비로 인해 자원의 매장량이 빠르게 하락하였음. 현재 구리 등 일부 비철금속의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수준임.
- 노동력, 에너지, 자금조달 등 요소들의 원가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환경보호 관련 높은 세금·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비철금속공업의 기업들이 여전히 경영난에 직면해 있음.
- 선진국에 비해 비철금속공업의 기술혁신 능력이 부족함. 기술 면에서 특히 기초소재, 기초기술, 핵심 기초부품 등 분야의 혁신 및 공급 능력이 부족하고 아직 선진국에 크게 의지하고 있음.
- 현실 상황이 녹색·저탄소 발전의 이념·목표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음.

□ 쌍탄 목표 하에서의 비철금속공업의 발전 기회와 도전

- [도전] △전통 에너지기술 사용 방법의 대변혁 △생산과정 중 배출 감축 문제 △비철금속공업의 에너지 사용 비용과 배출 원가의 상승 등이 있음.
- [기회] ❶쌍탄 목표 하에 많은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것임. ❷쌍탄 목표가 공급측 구조개혁의 심화에 유리함. ❸쌍탄 목표가 비철금속공업의 고도화 전환을 촉진할 것임.

□ 정책 제언

- 광물자원 공급의 기반을 튼튼히 하여, 자원 공급과 전체 산업망 안전 수준을 높여야 함.
- 공급측 구조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공급과 수요의 구조를 고도화해야 함.
- 여러 가지 정책 조치를 통해 기업의 비용을 낮추어야 함.
- 혁신 발전을 추구하고, 산업망의 혁신 능력과 공급망의 현대화 수준을 제고해야 함.
- 에너지 감축과 배출 감축, 청정생산, 순환경제 등을 추진하여 녹색발전을 달성해야 함.

-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결합하여 해외진출(走出去) 전략을 지속해서 실시해야 함.

◆ 토론: 중국거시경제연구원 류셴웨이(刘现伟) 연구원

〈요지〉

□ 쌍탄 전략은 피할 수 없는 추세이며 반드시 실시해야 함.

- 최근 백 년간 산업 발전과 인간 활동의 규모와 강도가 확대됨으로써 전 세계 평균기온이 현저히 상승했음. NASA의 관측에 따르면 전 세계 평균기온이 19세기 말에 비해 1.2℃ 이상 상승했다고 함. 기온의 보편적인 상승은 기후변화의 일부에 불과하며,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기온 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극단적 날씨임. 폭염, 홍수 등 ‘급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고, 가뭄 등 ‘만성’ 자연재해도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음. 그리고 해수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수분 증발이 가속화되고 따라서 풍속이 빨라지고 강한 폭풍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며,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많은 섬나라와 각국 연해지역이 수몰될 위험이 커지게 됨.
-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원인은 온실가스의 배출임. 대기 중에는 온실 효과가 있는 기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그중 주요 기체가 이산화탄소임), 그 기체들이 대기 중의 적외선을 흡수하고 나서 다시 배출하면서 지표면 온도가 점점 더 상승하게 되고 따라서 일련의 기후변화들이 나타남. 인간 활동은 온실가스 농도가 높아지는 근본 원인이며, 온실가스는 주로 화석에너지와 자연 자원에 대한 과도한 개발과 사용과정에서 발생함. 인류사회의 발전 과정이 곧 에너지의 개발과 사용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음. 인류사회가 몇 차례의 에너지 혁명을 통해 화석원료, 전력, 비화석원료 등 여러 단계의 에너지 이용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비록 사회생산력은 크게 진보되었으나 대신에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음. 특히 산업혁명 이후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대규모로 개발하고 사용하면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현저히 증가하였음. 지난 170년 간 인간 활동으로 인해 이산화탄소 농도가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 47% 상승했는데 이는 자연환경에서 2만 년 동안 증가한 양을 초과했음. 이러한 급격한 변화로 인해 생물종과 생태계의 적응 기간도 크게 단축되었음.
- 중국은 현재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1위 국가가 되었음. 2020년 9월 22일 시진핑 주석은 제75차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2030년까지 중국의 탄소 배출량이 정점(탄소 피크)에 이르도록 한 뒤, 점차 감소시켜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포했음. 중국의 이 약속은 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사건이며, 이는 중국이 탄소중립 목표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에너지·경제·과학기술 혁신 시스템을 녹색발전으로 고도화시키는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나타냄. 비록 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과 도전들이 있겠지만 이는 또한 과학기술 혁신·에너지·경제가 고도화되는 중대한 기회가 되기도 함.

□ 비철금속공업의 녹색·저탄소 발전에 대한 건의

- 비철금속공업은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 강도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특수한 지위에 놓여있으므로, 비철금속공업이 쌍탄 목표를 실현하는 것은 중대한 의의가 있음.

첫째, 비철금속공업의 채굴과 제련 사업을 풍력,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와 결합하는 방식으로 발전을 추진함. 기술혁신, 기술공정 개조, 생산과정의 유연화 설계, 풍력 에너지 저장 등 여러 가지 수단을 활용하여 신에너지 발전량(发电量)이 높은 시점에 에너지와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신에너지의 발전량이 낮은 시점에는 에너지와 전기를 적게 사용함으로써 전력시스템 내부에서 높은 것을 낮추고 낮은 것을 채우는(削峰填谷) 효과를 실현하고 비철금속공업의 신재생에너지 처리 능력을 높임.

둘째, 대규모의 국가 비철금속 비축제도를 구축함으로써 비철금속의 수급 파동으로 인한 가격변동을 완화하고 비철금속공업의 안정적·지속적·건전한 발전을 촉진함.

셋째, 비철금속공업의 국제 생산협력을 확대함. 일본, 한국 등 국가의 비철금속 광물자원을 발전시킨 경험을 본받아 광물자원, 제련 등 업스트림 분야에서 글로벌 구매와 저장을 추진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여 안전하고 믿음직한 글로벌 비철금속 자원의 공급지를 확보함.

넷째, 비철금속으로 철강을 대체하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함. 철강이 시멘트 대신 건축 자재로 사용되었던 경험을 참고로 하여 비철금속 기술로 철강을 대체하는 방안을 점차 추진하고 비철금속의 사용범위와 사용량을 확대함으로써 제조업의 고도화 전환을 추진하고 비철금속공업의 고품질 발전을 견인함.

【특별세션-온라인 발표】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전략 조정에 대한 연구

◆ 발표: 지린대학교 동북아연구원 런밍(任明) 교수

〈주요 내용〉

- 2012년 4월 북한은 정식으로 김정은 시대에 들어섬. 국제적으로 북한의 경제발전, 핵문제 및 대외관계, 체제 개혁 등 이슈에 대해 주목하고 있음.
- 정치전략
 - 김정은은 김정일 유헌통치로 첫걸음을 떼었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김정일 시대의 선군(先軍)통치 노선을 유지하였음. 김정은은 2011-12년 사이에 당·정·군 대권을 모두 확보하고, 조선노동당을 핵심으로 하는 지도체계를 강화하였으며 본인을 중심으로 하는 유일 지도자 체계를

구축하였음.

□ 안보전략

- 2012~18년: 핵 보유 전략

2013년 2월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은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었음을 보여줌. 그 후 북한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21개월 사이에 무려 세 차례나 핵실험을 진행하였음.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난을 무릅쓰고 핵실험을 강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핵무기를 보유한 후 미국에 대해 위협을 조성하고 미국과의 협상을 강요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국제사회에 융합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2018~22년: ‘핵 보유’ 전략에서 ‘핵 포기’ 전략으로 전환

2018년에 들어서 북한의 핵 보유 안보전략에 극적인 변화가 발생함. 북한은 2018년 4월부터 핵 실험과 ICBM 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모라토리엄 선언을 함. 2018년 9월에는 남북한 정상회담을 통해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여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선언했음.

- 김정은 시대 외교전략에 대한 평가

북한의 핵 포기 선언의 내부적 요인으로 볼 때, 첫째는 전쟁에 대한 우려에서 출발한 것이고, 둘째는 경제 붕괴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임. 외부적 요인으로는 한국 문재인 정부의 유도, 미국의 입장 전환, 중국의 영향 등이 있음.

□ 경제전략

- 2012~18년: ‘선군’ 전략에서 ‘경제건설+핵무기 개발 병행’ 발전전략으로 전환
- 2018~22년: ‘경제건설+핵무기 개발 병행’ 전략에서 ‘경제건설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전환

□ 외교전략

- 2012~18년: 김정은 집권 초반의 ‘활발한 외교’에서 3차 핵실험 이후 ‘핵 외교’로 바뀌었다가 4차 수소폭탄 실험 이후에 ‘협박(compellence) 외교’로 전환

[활발한 외교] 2012년 초에 진행된 북미회담이 성과를 거두어 ‘2.29 합의’를 달성, 위성발사 기간과 김일성 탄생 100주년 기념 열병식에 해외 언론사를 초청하여 촬영 허용, 아세안 안보 포럼에서 아세안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외교 추진, 일본과 대화 회복 등

[핵 외교] 북한은 3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에 자국이 ‘핵보유국’임을 선포하고, 한편으로는 핵문

제와 관련하여 미국과 핵 확산을 추진하지 않고 테러 조직과 협력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평화 협상을 진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미 군사훈련을 비난하며 끊임없이 전쟁위험을 일으키고 한반도의 긴장 국면을 격화시켰음.

[협박 외교] 북한의 제4차 수소폭탄 실험 이후 북미 관계에 질적 변화가 발생함.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의 협박에 대해 “화염과 분노로 반격할 것”을 선포한 후 북한도 이에 대해 협박 전략으로 강력하게 대응하였고 제5차, 제6차 핵실험을 연속해서 감행함.

- 2018~22년: ‘고립 외교’에서 다시 ‘활발한 외교’로 급전환

2018년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시사하는 발언을 시작으로 남북한 간에 활발한 소통을 회복하였고, 또한 평창올림픽 이후 싱가포르 회담과 하노이 회담이 추진되고 북미 관계가 대치에서 대화로 바뀌게 됨. 그리고 이 시기 북중 관계도 저조하던 시기에서 벗어나 양호한 상태를 회복함.

- 김정은 시대 외교전략에 대한 평가

김정은 시대 외교전략의 방향 전환은 외교 압박을 해소하고 국가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며, 한국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정확하게 파악한 결과임.